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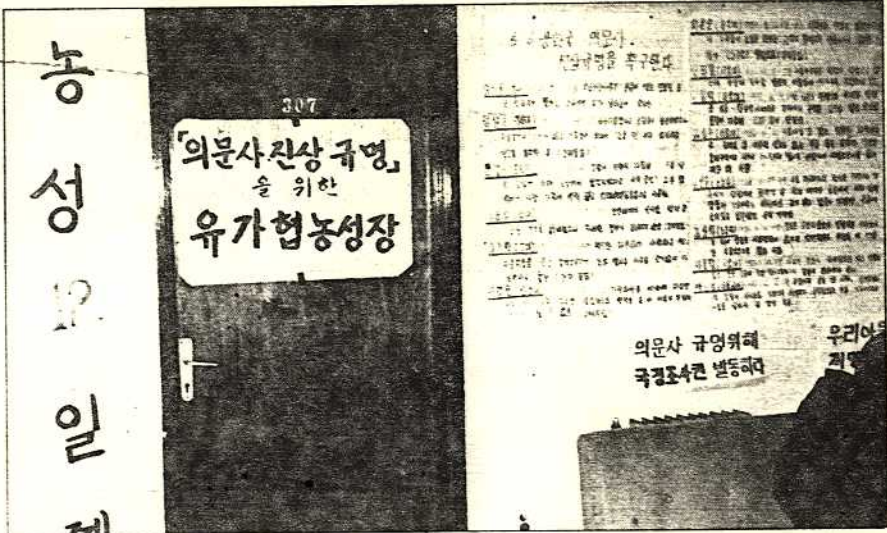


심층추적

# 80년대 '의혹의 죽음'

申東浩 경향신문 월간경향부 기자

'光州학살'이라는 '죽음의 팡파르'와 함께 시작된 80년대는 수많은 젊은 목숨이 스러져간 한 시대였다. 군대에서, 학교에서, 낯선 바닷속에서, 동굴에서, 교도소에서, 경찰서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영문도 모르는 시신을 거둔 부모의 철아오던 울분이 급기야 터지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34명의 죽음을 집중 추적한다.



# 34人

80년대의 속제

光州사태라는 '죽음의 序曲'과 함께 시작된 80년대는 수많은 인명이 신의 섭리를 이탈, 인간이 꾸민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깔렸다. 특히 미처 피어나지도 못한 젊은이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통탄의 깊은 무덤을 만든 채 이 시대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군대에서, 학교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 속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부모의 상당수는 장

래마저 유보한 가운데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작업에 손수 나섰다.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만 묻고 유골은 화장터에, 병원 영안실에, 또는 집에 안치한 채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시대의 속제를 풀기 위해 절규하고 있다.

체념한 상태로 삶의 의욕을 잃고 은거하는 아버지, 아들의 뱃가루를 가혹한 '이땅의 산하에 흘뿌리고 조국을 등진 어머니, 끝내 잡히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 '민주투사'로 나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 '학교에 보내면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해 죽고, 군에 보내면 자살했다는 연락이 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아들을 가진 모든 부모는 살얼음 딛는 심정으로 오늘의 한국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많은 어린 '烈士'를 탄생시킨 80년대의 막다른 지점인 이 순간, 아직도 젊은 목숨은 죽어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임목사가 연행된 것은 5공화국 탄생  
을 재촉한 광주사태 후속조치 중의 하  
나였고 박군 고문치사사건은 결국 6·  
29선언을 이끌어낸 촉매역할을 함으로  
써 제5공화국의 종말을 부채질...

민주화를 위해 갖가지 형태로 목숨을  
던진 숭고한 이들과는 또 달리 그야말  
로 '고독한' 그리고 처참한 종말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34명의 의문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  
다.

**'삼일공사'에서 조사받다 사망  
임기윤(목사)**

光州사태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80년 7월, 부산 제일교회 임기윤목사  
(당시 58세)는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  
실로부터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통지  
를 받았다. 임목사는 유신치하인 75년  
범교단 목회자의 반독재운동 조직인  
「사회정의구현 부산기독교회」 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요시찰'인  
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7월 19일 아침 6시 군수사기관으로  
출두한 임목사는 그날의 저녁 손님초대  
스케줄과 이튿날(일요일)의 예배 일정  
은 물론 모든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영  
영 갖지 못했다. 임목사의 가족이 21일  
전화를 받고 보안사 부산분실로 갔을  
때는 이미 임목사가 군병원으로 옮겨진  
후였다. 임목사는 순환기 절제수술을  
받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하다 7월 26일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거  
두었다.

조사 도중 임목사가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경위에 대해서 군당국과 유가족  
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군수  
사기관에서는 임목사가 고혈압으로 쓰  
러졌다고 주장한 반면 유가족은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  
게 됐다는 것이었다.

임목사의 미망인 최광명씨는 임목사  
의 평소 혈압이 80~150mmHg로, 체구  
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생전에 혈압으로 인한 이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사망 경위에 강한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세칭 '삼일공사'로 불리는  
대청동 보안사 본실에 연행된 사람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상하다는 게 당시 군수사기관을 보는  
일반의 눈초리였다.

그러나 임목사의 임종후 8년 동안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억울  
한' 죽음 이후에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만  
이 있었을 따름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  
을 모은 최종길교수와 장준하선생 등의  
죽음이 70년대의 대표적인 의문사라면  
임목사의 죽음은 80년대 의문사 1호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가려진 전기고문 여부  
朴鍾哲(서울대생)**

거듭된 은폐·조작으로 엄청난 국민  
적 분노를 자아냈던 87년 1월의 朴鍾哲  
군(당시 21세, 서울대 언어학과3) 고문  
치사사건은 검찰과 경찰, 정부 당국을  
발각 뒤집어 놓으면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진상의 많은  
부분이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군은 87년  
1월 13일 밤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  
전 7시 사이에 불법 연행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경찰이 찾고 있  
던 같은 서울대생 박모군의 소재에 관  
한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비롯한  
고문을 받다가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숨졌다. 그러나 연행시간의 조작 여부  
와 전기고문 여부,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고위층의 은폐 지시 및 목인 등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전히 명명  
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87년 5  
월 29일에 있었던 검찰의 최종 수사발  
표가 미흡한 사실을 지적, 6월 22일  
「진실이 밝혀지기 보다는 은폐되고 있  
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낸 바 있다. 이  
유인물에는 '렌즈 소독기가 든 손가방과  
학교 성적표가 없고 전날 진고 나갔던  
부츠와 하숙집 동료로부터 빌린 상아색  
목도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숙집이  
아닌 장소에서 발표와는 다른 시간에  
연행되었다는 가족과 주변의 주장에 대  
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군의 몸에 얼룩진 반점에 대  
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과 연행  
시간 등의 의혹에 비추어 치안본부 대  
공수사2단 5층 9호실이 아닌 장소(신문  
실)에서 제1차 고문이 선행되었을 가능  
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임목사와 박군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 종말을 예  
고한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임목사가 연행된 것은 5공화국 탄생을  
재촉한 광주사태 후속조치 중의 하나였

고 박군 고문치사사건은 결국 6·29선  
언을 이끌어낸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5  
공화국의 종말을 부채질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의혹사 사건은 이처럼 커  
다란 정치적 의미를 동반하고 우리 앞  
에 나타날 수 있다.

**유가협, 한달째 무기한 농성**

그동안 사인이나 사망 경위가 명쾌하  
게 밝혀지지 않은 사례는 엄청날 것이  
다. 죽음에는 늘 의혹이 따라다니게 마  
련이며 죽은 자는 진상을 말할 수 없  
다. 그러나 80년부터 지금까지 8년의  
기간 동안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가족  
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진상 규  
명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은 심  
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문사유가족협  
의회」(회장 임분이)가 탄생했다. 이 협  
의회는 이날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진  
상을 규명할 것을 결의하고 무기한 농  
성에 들어갔다(11월 15일 현재 농성 30  
일째).

이 협의회는 야권 3당에 의문사진상  
규명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국  
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故  
박종근군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에  
서 시작, 군대내 의문사 규명운동, 다  
시 80년대 의문사 규명운동으로 확대된  
이 협의회는 10월 25일 조직명을 「민주  
화운동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회

장 李小仙) 산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개칭했다. 이 위원회는 「제5공화국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文益煥 등 10인)와 궤를 같이해왔다.

공동대책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년대 의문사가 앞에서 언급한 임기윤목사·박종철군 등 34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平民·民主 양당 총재를 방문, 국회 5부 비리특위 인권비리 조사항목 중에 의문사진상규명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강제징집 사망자 1호  
정성희(일병·연세대생)**

1982년 7월 23일 0시 10분경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0사단의 한 철책초소에서 4발의 연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중부전선의 숨막히는 적막을 가른 이 총성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후 엄청난 원성을 자아냈던 강제징집 사망자 1호를 탄생시킨 신호탄이었다. 희생자는 연세대생 정성희일병(당시 20세)이었던

**새벽 4시 위동,  
공복시 통증이 사라지고**



위계양 심이정제에  
**큐란**

● 표준스레타 150mg 60정 49,800원  
300mg 30정 46,500원

**임중제의**

다. 군수사 결과에 의하면 정성희군은 82년 7월 22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9시간) GOP 실습 대학생인 임모군(당시 22세, 조선대2)과 함께 소속대 26번 철책초소 북초경계근무 중 7월 23일 새벽 0시 10분 경 자신의 지급 M16 소총에 실탄 1클립(15발 들이)을 장전하여 총구를 목부분에 밀착 격발(자동), 4발이 발사되어 두부 관통 총상으로 현장 사망했다.

정군은 8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연세대 교내시위 현장에서 연행되어 3일 만에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강제입대되었다. 군 당국은 정군이 이처럼 본인의 아니게 입대케 되어 철학도의 꿈이 좌절된 것을 비판하는 유서 1통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군의 주변에서는 군당국의 수사 결과인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군은 휴가를 나온 82년 6월 학교에 나가 친구와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고 귀대 직후 친구에게 밝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특별히 생을 비판할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군의 부모가 만난, 전방훈련 와 있던 목격자는 '총 소리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유가협이 접수한 의문사 34건 가운데 가장 많은 22건을 차지하고 있는 군내 의문사의 경우는 거의가 자살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군내 의문사가 많은 것에 대해 정당의 한 관계자는 "군부대라는 특수지역에서 사건 조작·은

폐가 더 쉽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대 8일전 목 매달아  
이운성(일병·성균관대생)**

강제징집됐다가 사망한 두번째 케이스는 제대를 8일 남겨둔 성균관대생.

83년 5월 4일 유복한 가족의 3대독자 이운성일병(당시 19세)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제00보안부대 정구장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군은 81년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에 입학,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서클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가두시위 때 연행되어 이 때문에 곧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李군은 아버지가 고령(당시 63세)인데다 3대독자이고 시력이 나빠 원칙적으로는 현역입대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군당국의 자살사건보고에 따르면李군은 83년 4월 30일 자신의 관물대에서 붙은땀자 2매(안전보장증, 월복만이 참된 삶을 찾는 길 등)가 발견되어 월복기도 혐의로 제00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자신의 비행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5월 4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내무반을 이탈한李군은 정구장 심판석(높이 3.25m)에 자신의 전투화 끈 및 요대를 이용, 목매어 자살했다는 게 군당국의 결론이었다.

**'끝없는 끝', 총기자살인가  
김두황(이병·고려대생)**

1983년 3월 5일 고려대 경제학과 4학

가족들은 최군의 사망이 자살로 처리되는 데 항의, 영안실의 시신을 지키며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최군이 사망한 지 1주일만에 타살로 판명되어 김모상병이 구속...

년 金斗滉군(당시 23세)은 토론을 빙자한 소요집회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었다. 3월 15일 석방된 김군은 이튿날 다시 불려가 3월 18일자로 군에 입대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金군은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6월 18일 밤 11시 30분경 경계근무 중이던 金이병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오줌 누러 간다'고 말한 후 잠복근무호 뒤로 약 7m쯤 걸어가다 목에서 정수리쪽으로 자신의 M16소총을 발사, 4발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새벽 비보를 접한 가족은 곧바로 군부대에 도착하여 김군의 시신을 확인하고 자살로 인정, 사체부검은 실시되지 못했다. 군당국의 수사소견은 평소 김군이 특수학적변동자로 강제입대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김군의 호주머니에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살이라는 판단이었다.

김군의 야전잠바 우측 상단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는 청색 만년필로 써져 있었다.

"끝"  
기다림밖엔  
그 무엇도 남김없는 세월이여  
끝없는 끝들이여



밀없는 가없는 모습도 없는  
 수렁 깊이 두발을 묻고 하늘이여  
 하늘이여  
 의처부르는 이 지나간 소리의 끝  
 연꽃으로도 피어 못할 이 서투른 몸부림의  
 끝  
 못믿을 돌덩이나마 하나  
 죽기 전에 디더 보마  
 죽기 전에  
 끝없는 네 하얀 살결에나마 기어이  
 불길한 꿈 하나는 남기고 가마  
 바람도 소리도 빛도 없는 세월이여 기다림  
 끝  
 남김 없는 죽음이 죽음에서 일어서는  
 의침의 칼날을 기다림밖엔  
 끝없는 끝들이여  
 그러나 김군의 주변에서는 '자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군은 유복한 집안의 3남3녀 중 막  
 내로 태어나 명량하고 매사에 성실한  
 인간형이었다고 한다. 학내활동을 자신  
 감 있게 처리하였으며 유머와 기지, 그  
 리고 세심한 배려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동료 학생들의 주장이었  
 다. 군입대 후에도 훈련소에서 뛰어난  
 훈련성적을 내어 사단장상을 받기도 했  
 다.

김군은 사망하기 보름전쯤 집에 '시계  
 를 보내 달라'는 편지를 띄운 바 있으며  
 그로부터 1주일 후 애인에게 보낸 편지  
 에서도 죽음의 냄새를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근무에 나가서는 "밥  
 과 누룽지, 빵 등을 먹어 배가 부르다"  
 고 동료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한영현(이병·한양대생)

한양대 정밀기계과 3학년에 재학중인  
 83년 4월 강제징집된 韓永鉉군(당시 21  
 세)도 그해 7월 2일 오전 10시쯤 벙커  
 에서 총기자살 시체로 발견되었다. 가  
 정환경 및 자신이 특수학적변동자로서  
 요관찰 중인 것을 고민, 염세비판 자살  
 한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했다.

韓이병은 대대 방어훈련 중인 7월 2  
 일 새벽 불침번 근무를 하면서 분대장  
 의 탄입대에서 실탄 1발을 절취, 은닉  
 하고 있다가 이튿날 9시 45분경 용변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빗속에 텐트로부터  
 1백m 떨어진 산병호로 들어갔다고  
 한다. 한군이 떠난 지 3분 후 총성이  
 울렸다. 이어 총구를 입에 물고 격발,  
 후두부 관통·두부 파열상을 입고 현장  
 에서 즉사한 한군의 시체가 부대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

군당국은 한군의 자살 동기가 가정환  
 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군의 아버지  
 는 부인인 한군의 어머니를 살해하여  
 무기수로 복역중이며 한군의 형은 어릴  
 때 소아마비와 폐결핵을 앓아 불구의  
 몸이 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는 것이다. 한군은 4형제 중 차남으로  
 서 장남 구실을 해야 하나 재산이 1백  
 만원 미만으로서 남은 가족 마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군 주변의 주장은 다르다.  
 한군은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했  
 으며, 가정의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민  
 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는 것이

다. 한군은 대학 1학년 때 민속문화연  
 구부에 가입하고 탈연합회(각 대학 민  
 속문화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듬해  
 민속반이 학교의 방해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소그룹활동에 주력하면서 부친  
 의 야학에도 가입했다.

구체적인 야학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한군은 83년 1월 성동경찰서에서 조사  
 를 받게 되고 그해 4월 1일 신체검사를  
 받았다. 누막염 등 극도로 쇠약한 몸으  
 로 병종을 받은 한군은 그 이튿날 경찰  
 서에 출두하라는 소식을 듣고 나가 행  
 방불명되었다. 그로부터 보름쯤 후 한  
 군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자 가족들은  
 비로소 한군이 강제입영된 사실을 알았  
 다. 병적기록부에 기록된 한군의 입대  
 일은 경찰에 불려나간 바로 그 날짜(4  
 월 2일)였다.

한군은 그해 6월 18일 부대 체육대회  
 응원에서 장구를 잘 쳤다는 명목으로  
 포상휴가를 받았다. 휴가기간 동안 한  
 군은 "정신력으로 모든 환경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자신이 없다" "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  
 이며 81학번뿐 아니라 72학번까지도 여  
 파가 미치는데 아마 커다란 배가 침몰  
 할 것이다"라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형에게는 "기관의 어느 사람을 만나  
 면 10월이면 의가사제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잘하면 10월부터 학교에 다시  
 다닐 수도 있는데, 죄책감이 너무 크  
 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군  
 의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는 군에서의  
 한군에 대한 조사와 회유 등일 것이라  
 는 게 한군 주변의 주장이다. 군당국에

5명의 군입영 사망학생을 낸 83년은 학생시위 혐의로 연행된 군미필자들이 대거 강제입영되어 복무하던 해이기도 하다. 이 무렵 대학가에는 '강제징집 철폐하라'는 구호가 시위 때...

서 주장하는 가정파탄은 그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군의 부친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은 그가 죽기 3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며 대학입학 후 그의 건강한 생활태도와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자살에서 타살로 번복  
최은순(이병·동국대생)**

1983년 8월 14일 최은순이병(당시 20세)의 집에는 최이병이 군무하던 부대로부터 '급위독'이라는 전보가 날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최군의 가족들이 서둘러 부대에 도착했을 때 최군의 시신은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최군이 총기로 자살한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했다.

최군은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인 83년 3월 29일 시위 예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강제징집됐다. 가족들은 최군의 사망이 자살로 처리되는 데 의혹을 품고 강력히 항의, 영안실의 시신을 지키며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최군의 사망 1주일만에 타살임이 판명되어 8월 22일 金모상병(당시 22세)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군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金모상병과

최이병이 83년 8월 13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 30분까지 초소 근무를 하던 중 5시경에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김상병은 4시 45분경 초소를 이탈, 인접초소의 신호체계를 확인하고 10분후 쯤 자신의 초소로 돌아왔다. 최이병은 모래주머니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김상병은 "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최이병의 엉덩이를 때렸다. 김상병은 최이병에게 "근무중에 자면 되느냐" "엎드려 뻗쳐"라고 말했다. 잠시 엎드려 뻗쳐를 하던 최이병은 "못하겠다"고 일어났다. 김상병이 오른 발로 최이병의 왼쪽 무릎을 한대 치는 순간 갑자기 최이병이 김상병의 눈부위에 오른 주먹을 날리며 모래주머니 위로 김상병을 밀어붙였다. 김상병의 얼굴을 4,5차례 난타한 후 최이병은 "나는 인생을 포기한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총을 집으려 갔다.

느닷없이 하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상병은 분노와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의 M16소총을 집어들었다. 조정간을 반자동에 놓고 총구를 최이병의 오른쪽 턱밑에 대는 순간 김상병은 실탄 1발을 발사해버렸다. 최이병은 광범위한 뇌좌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고참사병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군당국의 이같은 조사결과를 최군의 주변에서는 쉬이 납득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자살로 처리하려다 가족들의 항의로 재수사, 타살로 번복한 점이라든가 고참·졸병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고사는 일반적으로 졸병이 고참을 살해하는 게 보통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점 등이 최군의 죽음

에 대한 의문점이라 할 수 있다.

**서신검열로 조사후 자살  
한희철(일병·서울대생)**

1983년 12월 11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제0사단 본부대 비문합동 보관실 초소에서 발생한 한희철일병(당시 22세)의 자살사고의 경우는 한군이 특수학적변동자는 아니지만 강제징집 사망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학년 재학중 휴학을 하고 82년 12월 1일 입대한 한군은 재학 당시 가톨릭학생회와 성남 대학생연합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장차 사제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던 한군은 군입대후 내무생활에서도 평소 명랑하고 착실한 병사로서 내무반원의 애로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타개해 나가는 등 근무에 열성적이었다.

1년 남짓한 군생활 기간중 한군은 두 번의 포상휴가와 한번의 정기휴가를 나왔다. 83년 10월말경 정기휴가에서 한군은 친구에게 "늦어도 한달 후에는 의가사로 제대하니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군은 의아들로서 양친과 누이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정기휴가 귀대 직후인 83년 12월 5일 사단 보안부대로 불려가 5일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기간중 학생운동으로 도피중인 친구 김모군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쪽지를 방위병 친구인 전모군에게 부탁한 것이 발각된 때문이었다. 한군은 보안부대에서 5일간 수차례 수

정을 받으면서 대학생활동의 활동상황에 대한 장문의 자술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10일 오전 10시반 경 보안부대에서 복귀한 한군은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당국은 한군이 부대로 돌아온 이튿날인 12월 11일(일요일) 새벽 4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를 자진 신청, 소속대 임모이병과 함께 보초 경계 근무중 교대시간 직전인 4시 45분경 호안 벽에 기대어 앉은 상태로 왼쪽 가슴에 실탄 3발을 발사(자동), 자살한 것으로 보고했다.

한군의 가족은 한군의 유서라는 타이핑된 유인물을 건네받았다. 군당국이 파악한 자살 동기는 '한군이 독자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군 및 사회생활 등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5명의 군입영 사망학생을 낸 83년은 학생시위 혐의로 연행된 군미필자들이 대거 군에 강제입영되어 복무하던 해이기도 하다. 이 무렵 대학가에는 '강제징집 철폐하라'는 학생들의 피맺힌 절규가 시위때 단골 구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위동,  
공복시 통증이 사라지고**



**위계양,십이지장제양에  
큐란**

● 표준소매가리 150mg 60일 49,800원  
300mg 30일 46,500원

**일중제의**

#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위양 치료제

위양, 심이지장 위양에

## 큐란®

표준소매가격 150mg 60정 49,800원  
300mg 30정 46,500원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입양제약

다.

머리·양가슴에 삼각형 총상  
허원근(일병·부산수산대생)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제○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본부에서 30여 m 떨어진 폐유류고 위장대 뒤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許元根군(당시 22세, 부산수산대 2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許일병은 중대장 당번병으로서 첫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허군의 사망 시각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부대측에서는 자살이라고 단정지었다. 총상은 M16에 의해 흉부 좌우측에 2발, 두부에 1발 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살 동기는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생활에 대한 염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許군의 아버지 許永春씨(48)는 아들이 자살했다는 부대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 자살동기, 현장상태, 증언, 사후처리 등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허씨는 춘천 화장장에 있는 허군의 유골 인수를 거부하고 관계기관에 사인을 밝혀줄 것을 끈질기게 진정했다.

우선 허씨는 허군이 정말 자살했다면 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 도합 3발을 스스로 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총상은 앞가슴 좌우 중앙부분에서 등쪽 겨드랑이쪽으로 각각 나 있었다. 마지막 한발은 우측 눈썹 위에서 좌상 두부로 관통되었다. 허씨는 허군이 제 1발을 우측 흉부에 발사했다면 나머지 2발을

격발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두번째 의혹은, 사고현장의 실탄 및 탄피에 대한 의문이다. 최초 현장에 입했을 때 회수된 탄피는 2개이고, 15발들이 1탄창 중 잔여탄이 13발이며 그중 한발이 지면에 떨어져 있었던 점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자살자가 자살 장소에 가면서 기본 휴대량 75발(5탄창) 전량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도 수상쩍었다.

사망 시간과 총성 청취 시간이 여러 번 반복된 점도 의문시됐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20분경 사체가 발견되자 중대장은 총성청취시간을 10시 30분으로 중대원에게 교육시켰다가 11시 30분으로 재교육, 다시 오후 1시로 3차 교육하여 청취자의 청취시간의 정확성을 상실케 하고 최초 수사시 사망시간 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적시한 허씨의 진정에 대해 군당국은 이를 해명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총상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군당국은 허군의 흉부 사임구에 소흔(그을음)과 열상, 십자형 파열이 있는 것은 총구를 밀착사격한 증거이고 이는 방어중인 자를 밀착사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허군이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 구부린 자세에서 왼손 엄지로 제 1발을 격발 했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총구로 왼쪽 가슴에 밀착하여 오른쪽 엄지로 격발했다는 주장이었다. 가슴에 두발을 쏘았는데도 치명상을 입지 않아 허군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가슴에 두발 쏘았는데도 치명상을 입지 않아 허군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제3발을 격발했다고...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제3발을 격발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살상력이 좋다는 M16소총을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취하기 어려운 자세에서 사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는 군의관의 소견이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M16소총탄이 체내에서 뼈에 부딪칠 경우 탄두 자체가 분해되면서 여러 곳에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허군의 경우 가슴에 2발은 탄두가 분해되지 않고 관통만 하여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는 게 부검 군의관의 소견이었다.

탄창 및 탄피 회수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은 부대 병기계원이 현장을 번조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못찾은 탄피 1개는 현장 부근의 정밀수색으로 발견했다고 통보했다. 계원이 자백한 바에 따르면 허군의 휴대 실탄을 확인, 2탄창(30발)을 휴대했음을 알고 휴대규정량 5탄창을 휴대치 않은 데 대한 교육 부실 추구를 우려한 중대장의 지시로 3탄창을 현장에 추가시켜 두었다.

병기계원은 탄창 3개를 추가한 후 자살자의 총기에 삼탄된 탄창을 제거, 확인한 결과 탄창에 11발, 약실에 1발, 도합 12발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사체를 확인했을

“팬티에 묻은 변을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 보았으나 고문에 의한 배변이든 급작스런 설사에 의한 배변이든 장내의 변의질이 달리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 좌흉부와 두부에 각 1발(우흉부 미발견)씩 2발이 소모된 것으로 판단하고 탄창에 14발이 보관된 사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우려, 날발 1개를 현장에 던져두었다는 게 조사의 결론이었다.

사망시간과 총성청취시간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해명되었다. 군당국의 조사 결과 중대장이 9시 30분 각 근무지 순찰차 중대에서 출발, 북방 1백 m 지점 21번 근무호에서 근무확인하고 다음 호로 이동시 총성(9시 50분)을 희미하게 청취했다는 진술과 상황병이 21 근무호 근무자로부터 총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상황일지에 기재한 내용(9시 50분)과 일치됨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수차례의 진정과 관계자의 증언청취를 통해 허영춘씨는 자살이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病死, 그러나 몸에 명자국 이등일

군복무중인 지난 86년 9월 육군통합병원에서 사망한 이등일군에 대해서는 군당국이 사인을 폐렴이라고 발표했으나 유가족은 가슴·명치 부분에 명자국이 있어 타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기도하는 자세의 목맨 시체 김용권(상병·서울대생)

1987년 2월 20일 오전 10시 반, 경기도 의정부 소재 美제2공병단 캠프 인디언 영내에서 괴이한 絞死體가 발견되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하다 카투사로 지원입대한 金容權상병(당시 23세)의 사체였다.

金군은 자신의 2층 침대 난간대에 몸을 매단 채 죽어 있었다. 바닥에서 약 1.3m 높이의 난간대에는 전기 스탠드 줄이 묶여 있었고 金군의 사체는 그 줄을 목에 감고 꿰어 앉아 기도하는 자세였다. 사체 목격자는 윤모일병 외 3명이었다.

민민團 위원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金군의 자살사건은 사회문제화되어 金군의 사인에 의혹이 많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金祥根목사(NCC 고문·폭력대책위원장)와 金東完목사(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가 유언비어유포죄로 구류처분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을 金군이 불면증과 지병인 정신병 증세를 비판해 오던 중 부대원이 혼란 나간 기회를 틈타 내부반에서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金군의 일기와 룸메이트의 증언 등에 의하면 金군은 가정 환경을 비판했고 학생 시위에 적극적이지 못해 애인과 헤어진 바 있으며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끝마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자신에게 온 가족의 기대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또 金군은 중학교 시절 부친이 하던 사업이 망해 가정불화가 심했을 때와

대학시절 애인과 헤어졌을 때 노이로제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군복무 중에도 2달 동안 조울정신병으로 입원가료를 받은 점을 주목, 군 당국은 이같은 정신분열 증세가 자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金군의 어머니 朴命先씨(48)는 이와 같은 군당국의 결론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金군은 86년 8월 보안부대 추모상사에게 학원 프락치 노릇을 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 무차별 폭력을 당하고 난 후 정신병이 발병하여 자살했다는 것이다. 金군은 추상사에 제뿐만 아니라 다른 군 수사기관에도 들락거리면서 조사를 받았고 ‘7시간 동안 발가벗긴 채 맞았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추상사는 金군과 인척관계(金군의 이모의 7촌 조카)가 있는 장로서 86년 8월 3일 金군을 제0사단 보안부대로 불러 민민투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대달라는 말과 군복을 벗고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 노릇을 하면 가정에 큰 보탬이 되게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金군이 이를 거절하자 추상사는 다른 보안대 근무자를 시켜 사정없이 구타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을 당한 金군은 어머니 朴씨에게 “추상사가 나를 이용하여 출세하려 한다. 내가 병원을 출입하는 게 다 추상사 때문이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金군이 그해 11월 10일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추상사가 그 병원에 먼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金군은 추상사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

해와 있는 것이라 짐작하고 충격을 받았다. 金군이 안부를 물었을 때 추상사는 “다 너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金군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추상사의 집에 전화를 해본 결과 추상사가 金군보다 훨씬 전에 입원한 것이 확인되어 金군의 짐작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박명선씨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의혹은 金군이 2월 18일(수요일) 외출 나 왔다가 귀대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행방이다. 金군은 2월 18일 07:24에 위병초소에 외출서명을 하고 그날 20:30에 귀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씨는 귀대서명 시간이 20:18로 나타나 있는데 서명과 시간이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고 시간 기록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귀대 시간이 20시 30분이라 하더라도 집(영등포 소재)에서 7시에 출발한 金군이 과연 그 시간에 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었다. 박씨는 직접 그날 金군이 부대로 출발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의정부 캠프 인디언 위병초소까지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부대에서도 2월 18일 아침 8시 경 金군이 ‘121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내무반을 나간 후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아무도 金군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헌병대 CID의 말에 의하면 金군은 6월 20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망했다. 가족들이 제기한 ‘무릎꿇은 자세에서 목매 자살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목을 맬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 직후 몸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기 때문

에 어느 자세에서나 자살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록 자살로 판명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김군의 시신은 사망 후 20일만인 87년 3월 9일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서울시립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마에서 뒷목으로 난 총상  
노철승(병장)**

1987년 3월 1일 오전 8시 50분 청와대 뒷산의 한 초소 남방 4백50m 지점에서 제대를 9개월 앞둔 노철승병장(당시 22세)이 K2 자동소총 2발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단순한 총기자살로 처리되었다. 사립구는 이마, 사출구는 뒷목 부위로서 어느 총기자살과는 다른 정황을 보였다.

노군은 83년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85년 6월 입대했다. 노군의 형 노찬승씨는 조선대 철학과에 재학중 노군보다 1년 먼저 군에 입대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고 한다. 노군은 무선통신사 면허를 소지한 덕분에 특수부대로 차출되었지만 형이 복역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원 부적합자로서 특수부대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주장한다.

8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군이 수도통합병원과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도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라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노군은 사망하기 보름 전인 87년 2월 15일 원대복귀했다. 가

족들은 2월 15일부터 사망일인 3월 1일까지의 노군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고 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총기자살, 안경알 눈에 박혀  
이승삼(이병·부산전문대)**

1987년 3월 3일 강원도 원주 제○○사단 공병대에서 근무중 사망한 이승삼 이병은 부산전문대 전기과 1년 재학중이었다. 이군은 87년 2월초 소속부대에 배속을 받았는데 전입 10여일만에 중대장·선임하사·사병 등 4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가슴이 아파 숨을 제대로 못쉬고 있었다고 한다.

이 무렵 소속부대 최모일병이 이군의 안면 안경위를 구타, 안경이 깨지면서 안경알이 눈알에 박혔고 계속되는 구타로 인해 앞니 4개가 빠졌다고 한다. 부대측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군이 총기로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주장은 달랐다. 심한 구타로 이군이 기절하자 누군가가 타살한 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누운 상태의 이군의 목에 총기를 대고 발사했다는 것이다. 우선 배속받은 지 한달 남짓한 이군이 부대 환경에 익숙치 못 한데 어디서 실탄을 구했느냐는 의문점을 들었다. 또 이군 자신이 총구를 목에 대고 발사했다면 사출구가 머리의 가마 부위로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시신에서 나타난 사출구는 앞머리 부분이라는 점이다.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바깥 쪽 대고 발사해야 앞머리로 총알이 관통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起床직후 화장실에서 목매  
박필호(이병·부산대생)**

1987년 3월 19일, 부산대 의대 재학중 입대한 박필호군(당시 21세)이 기상 시간인 아침 6시경 화장실에서 목매 사건이 있었다. 자대배치를 받은 지 일주일도 못넘긴 박이병은 기상 직후 점호에 불참한 채 화장실로 가 야전잠바 끈을 고정시키고 목을 맨 채 다리를 번기속으로 집어 넣어 자살했다는 것이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3일 후에는 가족이 면회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정군의 사망 소식은 그날 오전 8시 15분경에 가족에게 전해졌다. 가족들은 박군의 시신과 사망 전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자살로 단정한 부대측의 주장에 몇가지 의문을 표기했다.

▼총상을 입고 사망한 끔찍한 현장.



제기했다.

우선 박군이 아무 이유없이 잠자리에 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자살했다는 것은 쉬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신의 상태도 수상했다고 한다. 목에 줄이 감긴 자국이 3군데 있는 점, 어느 교사체처럼 눈과 혀바닥이 나오지 않은 깨끗한 표정이었으며 가족이 도착했을 때(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시신이 이미 알콜처리된 점 등에 의문점이 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다.

**선임하사의 죽음  
박상구(중사)**

군대 내에서 사망사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현역 병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87년 5월 11일 충북 충주 소재 모부대 소속 박상구중사(당시



부검시 사체의 머리골에 피가 손가락 크기 만큼 엉겨 있는 것을 목격한 유가족은 이를 타살 흔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부검의는 장군의 사인을 의사로 추정해버렸다.

24세의 음독자살 사건은 색다른 의혹을 품게 한다. 박씨는 11일 새벽 1시 45분경 가난과 학력을 비판,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게 부대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입에서 농약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은 점 △왼쪽 허벅지에 칼자국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유서가 없는 점 △귀 뒷부분 머리와 어깨 부위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박씨는 울산시 방구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중졸 학력으로서 구미공단 소재 기술훈련원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지에서 선임하사로 복무중이었다.

### 예비군 훈련중 위출혈사 장춘근

87년 6월 4일 전주에서 예비군 보충교육을 받던 장춘근씨(당시 27세)는 그날 교육장에서 3백50여m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장씨는 4일 오전 7시경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선 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훈련을 받았다.

당시 훈련을 같이 받던 동료에 의하면 장씨는 술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맞아 코피를 흘린 바 있다.

부검시 좌측 뺨, 등 좌우측, 낭심부,

뇌 등에 타박상이 발견되었지만 사인은 위출혈로 발표되었다.

### 射入口가 射出口보다 커 이이동(일병·전남대생)

1987년 6월 15일 충남 대전시 李春垣씨(53)는 청천벽력의 비보를 접했다. 아들 李二童군(당시 21세, 전남대 교육과 2)이 경남 창원 소재 ○○사단 소속 부대에서 총기로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불과 한달 전 면회하고 온 李군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사체가 안치된 마산통합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이씨는 부대측의 자살 통보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21년간 구김살 없이 잘 키워온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李씨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다. 李씨는 광범위한 증언과 조사를 통해 이군의 사망이 자살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군당국은 사고 당일 12시 50분경 이군이 총기를 휴대하고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중대장이 무장탈영으로 보고 소속대 병력 40여명이 3개조로 분산, 인근 야산을 수색했다고 한다. 오후 2시 16분경 소속대 뒷산 약 5백m 거리의 3부 능선 숲 속에서 한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때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이 있던 한 방위병이 7,8분 후 현장에 도착, 절명하기 직전의 李군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군은 양 다리를 벌린 채 우측 두부를 땅에 대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총상은 머리 위쪽 좌우 양편에 나 있었다. 감식 결과 오른쪽의 총상은 8×

12cm, 왼쪽은 3×5cm였다. 오른쪽 무릎 앞에는 페탄상자가 위치해 있었고 M16 소총이 이군의 몸체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춘원씨는 우선 이군의 머리에 나 있는 총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군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살을 했다면 우측 총상이 사입구이고 좌측 총상이 사출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크게 나게 돼 있는데 이군의 경우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이 의문에 대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씨에게 회신해 왔다. 피부에 接射한 경우 사입구는 탄환에 의한 손상보다 총구에서 나오는 폭발가스에 의해 피부가 파열되기 때문에 성상형 또는 총탄에 의한 천공을 중심으로 수개의 피부 파열선을 나타낸다는 설명이었다.

수차례 진정서를 낸 이씨는 사체의 낭심에 나타난 붉은 타박상, 오른쪽 눈 주변의 멍, 이군이 미군이 사용하는 탄환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현장에 안경이 없었던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씨는 이군의 시력이 -0.6으로서 안경 없이 5백m나 되는 숲길을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가를 물었다.

### 고참에게 뺨맞고 투신 서대일(의경)

서대일군은 86년 6월 의경으로 임대하여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복무하던 중 87년 6월 19일 저녁 7시 50분경 외상성 대뇌·소뇌 지주막 하출혈, 양측 흉강 대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고참에게 뺨을 맞고 4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족 등 서씨의 주변에서는 부검 결과와 목격자, 뺨 때린 가해자 등에 대한 모든 조사 과정에서 투신으로 인한 상처와 투신자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볼 때 타살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족, 사인규명 요구 장영식(상경·고려대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중 의경으로 입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장영식상경(당시 21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장군은 1987년 7월 19일 새벽 1시경 사망했다. 장례는 3일만인 7월 22일에 치러졌다.

장군의 유가족들은 장군의 사망 원인과 사망사고에 따른 지휘 책임 소재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해버린 당국의 처사에 대해 모종의 흑막이 개재된 것으로 보고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순수한 영혼에 대한 간접살인을 세상에 알려 죽은 지 몇 달 지나도록 제 죽음의 의미조차 가려져 있는 불쌍한 그 애의 죽음을 민주화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 땅위에...”

**목아래부분 피멍이 더 선명  
이승환(일병·상지대생)**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하다 입대, 87년 8월 2일 사망한 李昇桓(당시 23세)도 부대측의 자살 주장과 달리 유족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별 어려움 없는 가정의 2남2녀 중 장남인 이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자살할 구체적 동기가 없었다고 한다. 이군은 일요일인 8월 2일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형태로 목매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승환군의 사체는 부대 숙소에서 좀 떨어진 야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가족들의 주장은 이군이 직경 3cm 정도의 구부러지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을 매고 자신을 목을 댔는데 비탈진 언덕에 양다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양 팔을 벌린 모습이라고 했다.

이군의 어머니 정순태씨(53)는 이군이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원 입대했으며 면회 또는 서신을 통해 군대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죽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 휴가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했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이군의 사체를 검안한 바에 따르면 시신의 목에 두 가닥의 피멍이 든 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목의 밑부분에 있는 줄이 굵고 선명하며 그 윗턱 부분인 밑에 나 있는 줄이 가늘었다. 정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살자의 목맨 흔적은 윗 부분에 크게 형성되는데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은 이군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사체에는 엉덩이 부분과 손톱에 피멍이 든 자국이 있었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군 당국은 ‘이군이 사망하기 일주일전 고참 상병이 각목으로 이군을 구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조사해냈다’고 해명하고 사체에 나타난 흔적은 그때 생긴 것이라고 통보했다.

정씨는 속초화장장 보관소에 있는 이군의 유골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화염에 싸인 채 장승처럼  
최우혁(이병·서울대생)**

1987년 9월 14일 오후 1시 서울대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군복무중 사망한 崔祐赫(당시 21세, 서울대 서양학과 3년 재적)의 「민주학생장」이 치러졌다. 이날 군 당국은 9월 8일 새벽 1시경 육군 00사단 00여단 소속 최우혁이병이 부대 쓰레기소각장에서 휘발유를 은몸에 뿌려 분신자살을 기도해 화상을 입고 신음중인 것을 부대 위병소 경계병 金裕錫상병(당시 22세)이 발견, 군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숨졌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군 당국과 학생들 간에 최근의 죽음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의사 표시를 한 셈이다. 군 당국은 최군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 자살한 것이라고 추측했고 학생들은 최군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최군의 죽음에 대해 최군의 아버지인 崔奉奎씨(57)는 의혹을 품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했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사인 규명 작업을 하게 되었다. 崔씨와 군 당국 간에 진정서 내용과 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으며 이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공방전의 주요 항목을 간추려 보자.

—명랑·쾌활, 대인관계 원만한 성실·도범 학생이 유서 없이 자살할 수 있는가.

“유격훈련을 받고 병으로 입대한 것을 후회했고 실수로 초안문서 9매를 세절시킨 데 대해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죽음을 결행했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처럼 몸이 불타고 있는 순간 장승처럼 서 있을 수 있는가. 왜 비명도 못 들었는가.

“조사 결과 화력이 강력한 휘발유를 사용하였으므로 점화하면 0.1초에 화염 높이가 4m(시험 결과)까지 솟는 불기둥의 화력에 의해 질식상태에 돌입, 걸어도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또 부검 결과 화염과 매연이 기관 및 폐까지 흡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성이 되지 않아 비명을 지를 수 없고 몸부림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분신할 때 점화한 불씨(라이터)가 분신 장소에 있어야 할 것인데 4, 5

m 가량 떨어진 갈나무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은 누군가 심한 고문으로 실신 직전에 있는 사고자를 휘발유를 몸에 부어 불태워 죽이고 자살을 위장, 모자·안경·휘발유통을 정돈해 두고 라이타는 깜빡 잊고 발견지점에 떨어뜨린 것 아닌가.

“사고자가 사망 20분전 정상적으로 울무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 고문당했을 가능성은 없다. 분신 직전 소지품을 오물장 칸막이 블럭담 위에 정돈한 후 휘발유 0.9ℓ를 몸에 뿌리고 빈통을 소지품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분신장소까지 이동하여 라이타를 점화하는 순간 뜨거운 느낌이 불씨가 있는 라이타를 권 손에 제일 먼저 오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위로 피해 반동에 의해 라이터가 약 4, 5m거리의 오물장 옆에 떨어진 것으로 가상 시험 결과 가능했다.”

—사고자가 3도 화상을 입고 후송되기 전인 15분 이내에 질식사망했다고 하는데 밀폐된 장소에서 극심한 화상을 입고도 7시간이나 신음한 사람이 있다.

“기도 및 폐에 매흔이 발견된 점과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군의관은 질식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사고자의 유품 중에 고문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 쓴 것으로 보이는 똥이 묻은 팬티가 있었다.

“팬티에 묻은 가로 4.5cm, 세로 3cm 크기의 변을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되려 보았으나 고문에 의한 배변이든 급작스런 설사에 의한 배변이든 장내의 변의질이 달리 나올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수사관은 급한 설사로 미처 변소에 가기 전에 나온 약간의 의변으로 추정한다.”

최군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군당국의 해명에 대해 ‘그럴 듯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이러한 건강부회식 해명보다 성의 있는 진상규명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부재자투표일 사망 '국방노동열사' 정연관(상병)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고참에게 기합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발표된 鄭然官 상병(당시 22세)의 시신은 벽제화장터 11번 코너에서 화장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당시 부재자투표 관련 설로 정치사건으로까지 비화됐던 정군

사망사건은 정군을 구타, 사망케 한 백모병장(22)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정군의 어머니 임분이씨(54)는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고 끈질기게 ‘정군이 부재자투표에서 야당을 찍어 맞아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군의 장례식 때도 임씨는 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생매장하라고 부르짖었다. 임씨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연관을 묻은 행위는 생매장과 마찬가지로 목청을 높이면서 “현정권의 탄생과 관련되어 죽은 연관은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눈감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정군이 사망한 87년 12월 4일은 부대 부재자 투표일이었다. 그날 저녁 백병

장은 싸리작업을 마치고 6시 반경 부대로 복귀, 부재자투표를 마쳤다. 취침점호 후 백병장은 금속수리반 9명을 기상시켜 침상에 일렬로 세워 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차례로 양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각각 2대씩이었다. 정군은 왼쪽에서 6번째 위치해 있었다. 백병장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칠 때 쯤 여러 명이 모여, 쓰러져 관물대에 머리를 부딪친 정군을 일으켜 세웠다. (白병장의 진술).

백병장은 심문에서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군을 폭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개요 설명에 백병장은 정군을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임씨는 자신이 복역 중인 白병장을 면회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면회를 거부한 사실과 피해자 가족인 자신에게 白병장의 재판 일자를 통보해주지 않은 경위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제대할 사람으로부터 정군이 야당 찍어 기합받다 사망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까운 자식을 잃은 임씨는 정군이 죽은 후부터 하루도 집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제 정군은 임씨에게 ‘국방노동열사’로, 스스로는 민주투사로 탈바꿈한 셈이다. “현정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연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

그러나 김군의 사체 발견현장과 주변 정황은 의문 투성이었다. 김군이 무엇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산 송도 매립지 앞바다까지 와서 철조망이 쳐진...

자면 이땅이 민주화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임씨는 반문했다.

#### 수상스런 익사체로 발견 정재곤(방위병·계명대생)

정재곤군(21)은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방위병으로 입대했다. 금년 7월 25일 아침 6시 50분경 정군은 방위 근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4일 후인 7월 29일 정군은 경산군 금호강변 자갈채취 웅덩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정군의 가족은 인양된 사체에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없고 양쪽 허벅지에 검은 피멍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타살된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사체는 8월 1일 부검이 실시되어 그날 오후 5시경 화장되었다. 부검시 사체의 머리골에 피가 손가락 크기 만큼 엉겨 있는 것을 목격한 한 유가족은 이를 타살 흔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부검의는 정군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처리해 버렸다.

정군의 가족들은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부대와 집 사이의 통근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강변 다른 도로변에서도 1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서 발견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제3의 장소에

서 누군가가 정군을 살해한 뒤 차로 실어 발견 현장의 웅덩이 속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약상납 요구 못이겨 분신자살’  
박종근(방위병)**

역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박종근씨(25)는 금년 8월 1일 자신의 근무지인 경주시 중앙동 동사무소 옆 창고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2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 의과를 졸업한 박씨는 5월 군에 입대, 6월 20일부터 근무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박이병은 아침 7시 50분 집을 나서서 5분 후 동사무소에 도착했다. 8시경 박이병은 매일 2번 실시하는 동사무소 주위청소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어와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 박이병이 창고 문을 열고 다시 열쇠를 동사무소에 갖다 놓은 지 7~8분 후 ‘핑’소리와 함께 동사무소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동사무소 당직자인 배모씨는 급히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창고가 연기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본 배씨는 여직원에게 화재 신고를 지시하고 창고 문을 발로 열었다. 박종근씨의 다리가 보였다. 뒤이어 소방차가 도착하고 8시 27분경 화재 조사관이 머리를 문 쪽으로 두고 있는 시체를 끌어냈다.

군수사당국은 이를 후 박씨가 ‘가정문제 및 여자관계를 비판하여 분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수감하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유가족과 학교 동문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재조사를 요구했다.

여론에 밀려 재조사에 착수한 군수사기관은 사건발생 후 약 1달이 되어 ‘중대장과 헌병대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일부 수정, 발표했다. ‘박종근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해 오다가 중대장이 보약을 구해 오라는 강요에 못이겨 분신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 등 박씨 주변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군당국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9월 16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는 박씨의 유가족, 동국대 민주동맹회, 재야인사 등이 「고 박종근씨 사인은폐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위원회는 이후 군대내 의문사 진상규명, 나아가서 80년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유가족과 이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사건 직후 헌병대에서 가족의 허락 없이 박씨의 집을 뒤져 사건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가지고 간 점 △시체를 발견한 사람과 끌어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문쪽에 다리가 있었다는 진술과 머리가 있었다는 진술) △안경테가 녹아 눈부분에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것은 조용히 누운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을 경우 가능함 △사체의 등이 타지 않은 점 △부검 결과 머리 뒤에 5cm가량의 멍이 있는 점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과 중대장·헌병대장이 1백만원 상당의 보약을 끈질기게 요구한 점을 감안, 이와 관련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유가족 및 관계자의 주장이다.

**‘운동’공간 잃은 여대생의 자살  
박선영(서울교대생)**

朴鍾哲고문치사사건으로 대학가가 뒤숭숭하던 87년 2월 20일 저녁 7시 30분경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선영양(당시 22세)은 서울 창신동 자신의 자취방 부엌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박양은 그날 같이 자취하던 언니와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 언니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박양의 시신은 부엌 벽의 시멘트못에 연결된 끈에 매달려 있었다. 박양의 어머니 뭇永子씨(47)는 당시 목을 매달기 위해 디디고 올라서야 할 받침대가 없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박양의 유서를 가져갔다. 유서는 ‘부모님 강하게 바르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경찰과 학교 당국은 박양이 운동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을 중시, 박양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경찰은 박양의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이 조용히 처리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박양의 가족들은 박양의 죽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시신을 화장해 버렸다. 사체부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6·29선언 이후 박양의 가족은 박양이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찾기 위해 경찰과 학교당국의 사건 기록 및 증언을 수집하고 박양의 사

인 규명 및 명예회복에 나섰다.

박양의 어머니 오영자씨는 박양이 죽은 후 경찰과 학교 당국이 끈질기게 ‘박양이 운동권이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하라. 유가족에게 좋을 것 없다’고 권유한 사실에 의혹을 품고 있다. 당시 서울교대 정모학장은 공공연하게 “선영이는 혼성운동권 출신으로서 남자문제에 자살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소위 ‘민중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있는 박양의 아버지는 박양이 의식을 갖고 학생운동에 투신했으나 학교의 비민주적인 분위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잃고 압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양이 학내 학생운동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던 중 85년 정학장이 취임, ‘학생운동 근절’을 공언하면서 소위 문제학생을 삼문·취조, 무더기 징계하고 기존 서클을 해체·통합함으로써 의식화된 학생을 발붙일 데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박양의 명예회복을 위해 학교로부터 박양의 명예졸업장을 받고 화장 후 보관하고 있던 유골과 박양의 잘라 놓은 머리카락을 광주 망월동 묘

**새벽 4시 위통,  
공복시 통증이 사라지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큐란**

● 표준소매가격 150mg 60일 49,800원  
300mg 30일 46,500원

**일등제약**

申씨의 사체는 입고 있던 옷을 동글 바위틈에 고정시켜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팔꿈치 위의 양팔은 허대로 감겨 있었으며 소지품은 동글 내에서 불태워지고 일부가...

역에 안장했다.

“박종철·이한열, 그리고 무수한 민주열사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 한 순수한 영혼에 대한 간접살인을 세상에 알려 죽은 지 몇달이 지나도록 제 죽음의 의미조차 가려져 있는 불쌍한 그 애의 죽음을 민주화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 땅위에 끄집어 올려 놓고 싶을 따름입니다.”

박양의 아버지의 절규이다.

**광주사태 관련 옥중사망  
박관현(전남대생)**

80년 광주사태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군은 광주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구속,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군은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면서 82년 7월 8일부터 20일까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40여일을 교도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했다.

그해 10월 4일부터는 교도소측이 박군을 징벌방에 가두고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군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10월 10일 전남대병원에 입원, 이를 후인 12일 '3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광주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

련, 복역하던 한 학생의 옥중사망은 5공화국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며 광주지역과 재야 민주화 세력 등에 퍼져나갔다. 박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교도소내의 고문·폭력·인권말살 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게 박군 관계자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수박처럼 쪼개진 두개골  
이태춘(회사원)**

지난해 6월은 전국 주요도시가 최루탄과 함성으로 뒤덮혀진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6월 18일의 부산 시위는 그 규모나 정도가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지역을 통과한 시민 자신들도 최루탄 가스 속에서 혼비백산을 거듭,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날 저녁 10시경 좌천동 오버브리지 시위 현장에서 회사원 李泰春씨(당시 27세)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씨는 행인들에 의해 밤 11시경 병원으로 이송, 뇌수술을 받았으나 6월 24일 저녁 8시 40분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뇌좌상이었다. 오른쪽 이마 윗부분에서 정수리를 거쳐 후두부까지의 두개골이 수박 쪼개지듯 일직선으로 골절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외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 태광공무(주) 무역부에 근무하고 있던 李씨는 가족들의 희망이요 집안의 기둥이었다. 이씨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미혼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위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고 어머니는 직물·신발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추락사로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李씨의 시신은 양산군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씨의 어머니 朴英玉씨(57)는 사고자의 머리 이외의 부위에는 외상이나 골절이 없는 점과 옷에 최루탄 가루가 심하게 묻어 있었던 점, 그리고 병원에서 李씨가 “최..., 최...”라면서 말을 하려고 애쓴 점 등을 들어 직접 사인이 추락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朴씨는 아들이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호소했다. 사고 당일 불발탄이 달았다는 점을 중시, 이씨가 불발직격탄에 두부를 맞아 심한 골절상을 입어 사망했으며 그래서 부검결과 파편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朴씨는 설명했다.

**연행후 정신병동에서 투신  
고정희(연세대생)**

금년 1월 이후 청와대·美대사관·백악관·독일대사관 등에 ‘부정선거’를 알리는 투서를 한 바 있는 고정희씨(28)는 지난 3월 경찰에 연행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던 고정희씨는 강남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입원되었다. 이러한 고정희가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병원측에 따르면 고정희가 사고 당일 10층 정신병동에서 정문으로 달려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9층으로 내려간 뒤 공사중인 신축공사장 배너어판(구멍)을 뚫고 나가 투신, 2층 구름다리 위로 떨어

어졌다.

현장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떨어진 고정희는 입 주위에 피가 원형으로 고여 있었고 끼고 있던 안경에는 알이 없었으며 알이 깨어진 파편도 보이지 않았다.

고씨 주변에서는 고정희가 병실안에서 항상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고 전날 결혼·수영배우기 등 퇴원 후의 생활 설계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씨는 光州에서 태어나 연세대 재학 중 1981년 강제징집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졸업(전기공학과)한 바 있다. 198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편입학했고 그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민족통일애국운동청년단중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수배중 철로변에 변사체로  
우종원(서울대생)**

三民關관련 용의자로 수배중 85년 10월 12일 경부선 황간역 주변 철로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서울대생 禹宗元군(당시 23세, 사회복지과 4)에 대한 자살·타살 시비는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禹군은 85년 8월 대구 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자신의 수배 소식을 듣고 가출, 2달 후 시체가 되어 가족에게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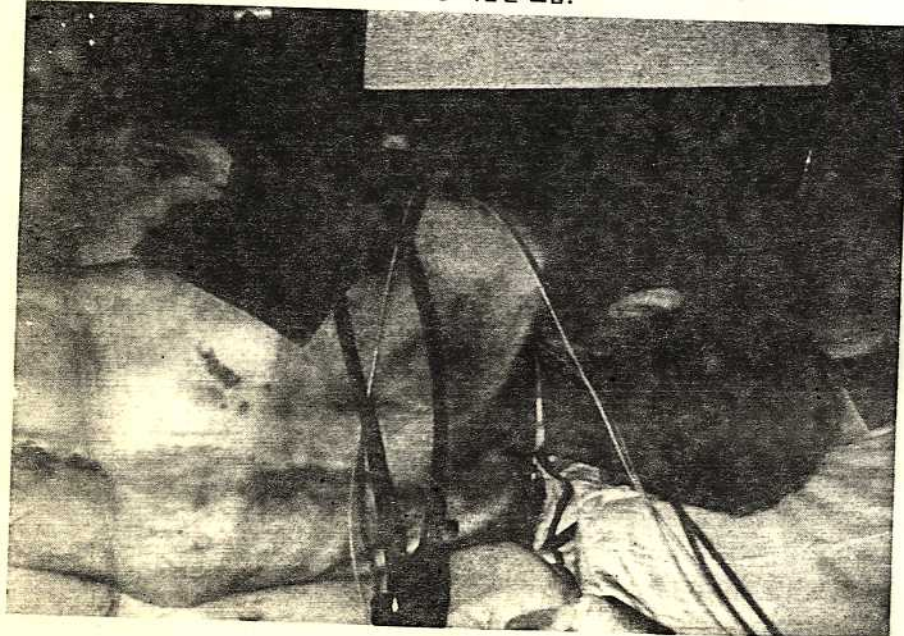
경북 의성에서 2남3녀중 차남으로 태어난 우군은 81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 83년 11월에는 학의 유인물배포

사건에 관련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특사로 출감했다. 85년 여름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게 된 것은 이 같은 전과 사실로 실역복무 기회를 상실한 때문이었다.

8월 중순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던 우군이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수배소식을 접한 것을 8월 24일, 우군은 8월 26일 가출, 도피를 시작했고 이튿날 형사 2명이 그의 집에 찾아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한달후 일간지에 보도된 삼민투 관련 수배자 명단 속에 우군의 이름이 올라갔다.

도피중 우군은 가끔씩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안부를 알렸다고 한다. 마지막 전화는 사망 통보를 받기 5일 전 대구의 누나가 받았다. 우군은 전화

▼경찰 연행후 식물인간이 된 김상원씨의 사망 이틀전 모습.



통화에서 자수할 의향을 비쳤고 누나도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우군의 가족이 사망 소식을 접한 것은 85년 10월 12일 오후 6시경, 우군이 85년 10월 11일 밤 11시경 경부선 하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충북 영동-황간역 사이 황간역 4km쯤 되는 지점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시신은 다음날 아침 철도 선로반원에 의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우군이 동료 운동권 학생들로부터 소외당해 왔고 가정문제로 고민하던 끝에 열차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우군의 어머니 李桂南씨(55)는 사건 발생 당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자살이라는 데는 의심이 많았으나 항의 또는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못하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 유골을 성주대교 밑

강물에 뿌려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 민통련 대구시지부 등 재야단체와 동료학생, 가족에 의해 사인 규명 요구가 빗발쳐 당시 신민당 睦堯相의원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睦의원이 85년 11월 3,4일 양일간 4명의 조사반을 편성,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족 면담 결과).

- ① 우종원군의 자살 동기가 없다.
- ② 우종원군은 이미 구속된 전과가 있어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③ 경찰 등 정보기관원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거나 전화하고 동태를 파악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 ④ 유서라는 쪽지 내용중 일부분만이 우종원군 본인의 자필이며 주민등록번호 등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 ⑤ 운동권학생들을 서울시경에서 수배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우종원군 본인이 전화 연락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 ⑥ 사고현장에 신발이 한쪽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발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고 속옷은 깨끗한 데도 양발은 발가락이 다 나올 정도로 다 떨어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깔끔한 성격에 비추어 의문이 간다.
- ⑦ 실역 미필 예비군 기본교육 3주 중 2주만 교육받고 1주일을 남겨놓은 채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 하루밤 자고 들어온 뒤 서울로 간 것이 석연치 않다.

**연고없는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  
김성수(서울대생)**

1986년 6월 21일 오후 1시경 스쿠버다이빙 최모씨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매립지 앞 바닷속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시멘트 덩어리를 몸에 매단 채 숨겨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생인 金成洙군(당시 18세)으로 후에 밝혀졌다.

金군의 사체는 소초가 끝나는 바닷속 수심 17m 지점의 시멘트 삼발이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상하의와 신발, 안경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발견자는 당시 작살로 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탐색 중이었다고 한다.

김성수군은 강릉에 사는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서 누나와 자취를 하고 있던 중 86년 6월 18일 자취방에서 시험공부를 하다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대공과로부터 가족에게 변사체 확인 통보가 온 것은 6월 23일 밤 10시 쯤이었다. 김군은 재학중 학내 서클에서 활동했고, 학생운동으로 두차례 연행된 바 있었다.

사체를 확인한 김군의 가족은 경찰과 주변의 증용에 이끌려 자살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서둘러 화장, 유골을 사체가 발견된 송도 매립지 앞바다에 뿌려버렸다. 86년 8월 26일자 부산서부경찰서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도 '변사자가 사회 부적응자로 판단되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김군의 사체 발견현장과 주변 정황은 의문투성이였다. 김군이 무엇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산 송도 매립지 앞바다까지 와서 야밤에 철조망이 쳐진 통제구

가족들은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경위부터 추적해볼 도리밖에 없었다. 김씨는 가족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86년 5월 26일 76일간의 긴 투병생활을 마감,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역을 통과, 유서 한장 남기지 않고 물에 뛰어 들었는가. 더우기 시멘트 덩어리를 2개나 몸에 매달고 해안으로 부터 10m나 헤엄쳐 들어가(평소 김군은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함) 자살했다는 점과 보통 자살자와는 달리 안경을 쓰고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된 점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사망자 확인 이전인 23일 오전에 이미 강릉에 있는 김군의 어머니의 직장에 정보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가정과 신상에 관한 문의전화와 결려와 직원이 자세히 답변해준 사실이 있고, 김군의 가족 및 고등학교 은사로 부터 학업에 소홀하다는 등의 정보를 유도심문해 얻어가려 한 점 등에 대해 가족들은 의혹을 품고 있다.

경찰은 김군의 의문사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자살임을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렸다. 변사자의 유서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자살자가 반드시 유서를 남긴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폈다. 출입이 통제된 해안에 김군이 철조망을 뛰어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현장에 철조망이 쳐져 있기는 하나 출입자 통제에는 효과가 없고 출입구 창고 바로 옆 구내로 뉘시꾼들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멘트 덩이 2개를 몸에 단 채 10m 가량 헤엄쳐 자살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추중중인 시멘트 방파제 통로(폭 1m) 옆에 설치된 파도막이 삼발이 구조물의 폭이 8m인 점을 들어 변사자가 헤엄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다쪽 삼발이 가에서 바로 밀려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군이 선배들의 반강제에 의해 서울에 가입했으나 그 결과 성격이 불량하여 심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추정, 김군이 심리적 갈등으로 무작정 부산에 달아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보았다. 혁대에 돌을 달아맨 것은 부모에게 자살을 숨겨 불효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판단했다.

김군의 어머니 全永姬씨(50)는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재조사하라는 진정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밝히면서 "독재정권이 존속하는 한 자체적인 진상규명은 기대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분개했다. 全씨는 또 "이런 죽음들의 진상이 밝혀지려면 악행을 행한 당사자가 양심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 연행후 동굴에서 변사체로 신호수(노동자)

인천시 항동 연안가스에 근무하던 申虎樹씨(당시 23세)는 1986년 6월 11일 서울 대공수사와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로부터 8일 후 신씨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체 발견자는 강모씨 등 3명의 방위병. 이들은 86년 6월 19일 오전 10시경 인적이 드문 대미산 중턱에서 산딸기를 따먹던 중 동굴 속에서 흰색 면양말에 편터만 걸친 신씨의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체 발견 지점인 굴바위는 여수시로부터 12km 떨어진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에 위치한 대미산 중턱에 있다. 이곳은 도로에서 70°의 급경사를 1백m 가량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신씨의 연고지역이기는 하나 한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악산인 데다 5살 때 상경한 신씨는 이곳과 주변 지리에 생소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신씨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모은 불운유인물 전으로 연행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이처럼 먼 곳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경찰은 신씨를 연행 당일 오후 6시 30분경 귀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의 사체는 입고 있던 옷을 동굴 바위틈에 고정시켜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팔꿈치 위의 양 팔은 혁대로 감겨 있었으며 소지품은 동굴 내에서 불태워지고 일부 남아 있었다. 시체는 이미 부패되어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여수경찰서 형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그러나 신씨의 아버지 申正鶴씨(51) 등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해줄 것을 관계 요로에 진정했다.

신민당(당시) 인권옹호위원회는 신정학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조사 결과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신씨의 시체를 6월 19일 발견, 6월 21일 가매장한 후 뒤늦게 6월 27일에야 가족에게 통보했고 △신씨 발목의 흰색 면양말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하고 △의사의 검시 결과 신씨는 시체 발견 5일 전에 사망했다는데 이것은 강제연행된 지 불과 2~3일만에 사망했다는 결론으로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의문을 지을 수 없었다.

신씨의 아버지 신정학씨는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 외에도 사체 발견 현장이 붕괴되어 현장보존이 되지 못한 점과 사체 발견 당시의 현장을 찍은 사진 필름이 '먹통이 되었다'는 경찰의 해명에도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신정학씨를 만난 기자는 사건 현장의 돌이 붕괴된 것은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이라는 경찰 수사보고를 인용,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신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천년의 세월을 끄덕 없이 견뎌온 바위가 금방 무너져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刊 思想과 政策 '88  
特稿: 한국議會政治論 가을호

#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케양 치료제

위케양, 십이지장케양에

## 큐란

표준소매가격 150mg 60정 49,800원  
300mg 30정 46,500원

건강100세를 추구하는  
입중제약

### 공문서 위조부분 인정하나... 김상원(노동자)

1986년 3월 10일 金相原씨(당시 33세, 일반페인트공)는 '친구를 만나러 영등포에 간다'고 하면서 신림동 집을 나섰다. 그날 영등포 일대는 근로자들의 노동절 시위가 한창이었다. 김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 연락 없이 행방이 묘연해진 김씨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동생 金相模씨(33)가 가출 신고를 하고 3월 16일 영등포경찰서로 찾아가 형사피의자 기록을 열람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행방은 가족들에게 잡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영등포 일대와 시내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영안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씨의 소재가 밝혀진 것은 실종된 지 35일만인 4월 14일이었. 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씨를 찾아냈다.

사지가 마비된 채 절개된 기관지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숨을 쉬며 연명하는 김씨는 자신이 그 지경이 된 경위를 가족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가족들은 김씨가 병원에 옮겨진 경위부터 추적해 볼 도리밖에 없었다. 김씨는 가족들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86년 5월 26일 76일간의 긴 투병생활을 마감,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병원의 입원기록부터 추적해 들어간 김씨의 가족들은 실종일인 3월 10일 김씨가 영등포경찰서 관할 중앙파출소로

연행된 사실을 알아냈다. 동생 상모씨에 의하면 김씨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영등포우체국 앞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파출소에 연행되었다. 술에 만취된 김씨가 검문에 항변하자 경찰관들은 김씨를 무차별 구타, 김씨는 앞이빨 6대가 부러지고 뇌좌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행려환자로 위장입원되었다는 것이다.

김상모씨는 1년여에 걸친 추적조사 끝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모순경 등 5명을 폭행치사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모씨는 고소장에서李明의경이 피해자를 연행, 강모순경에게 인계했고 강모·김모 등이 피해자를 집단구타, 사경에 이르자 홍모순경에게 피해자를 인계, 홍모가 이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사실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업무일지에 사고·내용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전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고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게 김상모씨의 조사 결과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이러한 주장 중 경찰이 사건기록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기록한 사실 등 공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폭행치사 부분은 밝혀지지 못했다. 김씨는 다시 1년 후인 지난 5월 관계요로에 진정, 사망자의 사망경위를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 "공소시효 지났다" 문영수(노동자)

김상원씨의 경우와 흡사한 사건이 82년 8월 발생한 사실이 있다. 서울 지교통에서 버스 운전수로 근무하다 휴직한 文英洙씨(당시 29세)가 光州에서 사망, 전남대 해부학교실로 사체가 인수되어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文씨는 82년 8월 19일 밤 10시 반경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광주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가해자인 문씨는 이튿날인 8월 20일 오전 9시경 전날 밤 사건담당 형사에 의해 노상에서 실음중인 환자로 발견되어 행려환자로 병원에 이송,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었다.

결혼해서 처와 자식까지 있는 文씨의 사체는 본적·주소 일체 불상으로 처리되어 학생 실습용으로 능멸되었다. 춘천에 거주하던 文씨의 동생 文德洙씨(33) 등 가족들은 文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광주 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가 전남의대 영안실에 유골로 안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인 규명에 나섰다.

그 결과 문덕수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최모 순경을 비롯한 9명을 87년 9월 12일 광주지방법검찰청에 고소했다.

1.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 여인숙에서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와 피해자인 김모가 술을 함께 마시다가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뼈가 모두 낙엽 위에 노출되어 있는 점, 현장 주변에 밤을 깐 흔적이 있는 점, 검안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동물이 뼈를 물고 간 흔적이 없는 데도 현장에 뼈가 11m 이상...

검거, 역전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해자 김모는 피를 흘려 효성병원으로 후송하고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고 한다.

2. 가해자 문영수는 연행 다음날인 8월 20일 오전 9시경 전날밤 조서를 받은 경찰관 2명에 의해 광주시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되어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 8월 22일 오후 6시경에 사망했다고 한다.

3.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주소 일체 불상으로 경찰관에 의해 허위조작되어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인계되어 몇개월 후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경찰관의 동행보고서 허위작성, 신분이 뚜렷한 사망자를 행려병사자로 조작한 점, 사체 검시 방해와 유족의 동의 없이 사체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사체온난, 사체검시방해, 직무유기, 사체해부보존법 위반 등의 점은 공소시효인 3~5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공소권이 없음을 밝히고 다만 척모에 대해서만 허위 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10월 6일 구속 기소했다.

사망자의 동생인 문덕수씨는 "유가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 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족으로서 배상보다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 문영수씨의 유골은 전남대학병원 영안실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진상 규명 때까지 유골을 집에..."  
정경식(노동자)**

대우중공업 창원2공장 근로자 鄭京植씨(실종 당시 28세)는 1987년 6월 8일 실종됐다가 9개월만인 지난 3월 2일 뼈만 남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실종 직전에 있었던 소속 회사의 노조지부장 선거에 김숙이 관여했던 정씨가 행방불명되자 가족·제야단체·회사·경찰 등이 이 사건을 놓고 타살시비까지 불러일으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노조지부장 선거 결과를 놓고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추모씨의 코뼈를 다치게 했다. 이씨는 병원진단서를 첨부, 1백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건으로 6월 10일 출두하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정씨는 합의를 하기 위해 6월 8일 오전 9시경 우산을 쓰고 회사를 나섰다.

홍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 오전 10시경 기숙사 앞에서 정씨를 만나 11시에 합의 당사인 이씨와 함께 기숙사 106호실로 들어갔다. 약 15분 후에 이씨는 기숙사를 나갔고 홍씨는 정씨와 2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기숙사를 나왔다고 한다. 운동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채 우산을 쓴 정씨가 기숙사 정문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본 홍씨가 실종되기 전 정씨의 마지막 목

격자였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증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의 가족들은 정씨가 실종된 지 한달 후인 7월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홍씨를 비롯, 노조지부장 선거 관련자 10여명과 경비·기숙사 관계자 2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폈지만 정씨가 어떤 이유로 실종됐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던 87년 12월 12일, 창원시 동성동 관음사 뒤편 야산에서 뼈만 남은 시체가 발견되자 정씨 실종사건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찰은 조사후 이 번사체가 정씨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매장했다. 그러나 가족과 민통련측이 사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무덤을 개장하는 등 시비는 꼬리를 물었다.

이런 와중에 정씨의 사체가 창원시 삼정자동 내리부락 뒤 야산에서 금년 3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발견되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산불을 끄기 위해 산에 올라 갔던 산불방지요원 朴基燮씨(40)는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의 회사 출입증, 실종 당일 정씨가 갖고 나갔던 우산 등이 발견되었고 사체의 오른쪽 팔뚝에 박힌 철심이 정씨의 것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고 사체가 정씨의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또 시체 발견 지점에 높이 3m의 밤나무가 있고 길이 1m의 초록색 델빵끈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정씨가 밤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가족과 그동안 정씨 사건 관련자들은 사체 발견현장을 면밀히 분석, 자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정씨가 자살하기 위해 바위 위나 밤나무 위에 올라가 끈을 묶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바위 위에서는 1백65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손을 뻗쳐 닿을 수 없는 위치에 끈을 맨 나뭇가지가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묶었다면 밤나무 가지가 부러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끈이 매어져 있는 부분의 나뭇가지의 표면이 다른 부위와 색깔·굵기가 같은 점은 그 끈이 그곳에 묶인 지 얼마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했다.

뼈가 모두 낙엽 위에 노출되어 있는 점, 현장 주변에 밤을 깐 흔적이 있는 점, 검안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동물이 뼈를 물고 간 흔적이 없는 데도 경사진 현장에 뼈가 상하 11m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점 등도 의문점으로 제시되었다.

유족들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사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거부, 유골을 집에다 보관하고 있다. \*

**새벽 4시 위통, 공복시 통증이 사라지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큐란**

● 표준스��라리 150mg 60정 49,800원  
300mg 30정 46,500원

**일동제약**